

# In Search of a Future for "Sinographic Studies": The Poetics of Literary Beginnings in Korean and Japanese Historical Chronicles

## 강연 일정 및 주최

일시: 2017년 3월 9일(목) 10:30~11:45

장소: 고려대학교 교양관 605호

주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고려대학교 CORE사업단,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 강연자 Wiebke Denecke

의학, 중국학, 일본학, 그레코-로만 철학을 독일, 헝가리, 노르웨이, 중국, 대만, 일본에서 공부했고, 괴팅겐 대학(the University of Göttingen)에서 학사·석사학위를, 하버드 대학(Harvard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중일 한자문화권 형성기의 사상 및 철학의 비교, 수사학, 시가와 시학, 궁정문화, 다중 언어 환경 속에서의 한문학 전통의 발전, 문화교류와 외교 등 근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새롭게 바라본 고대 동아시아 전통의 새로운 발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자문화권에서의 '문학' 개념의 발전에 대해 넓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세기 한자문화권이 해체되기 이전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나라들이 공유하였던 동아시아 공동의 문화 유산으로서의 '文'의 세계를 재발견하고 재평가하는 데에 진력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The dynamics of masters literature: early Chinese thought from Confucius to Han Feizi*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Classical World Literatures: Sino-Japanese and Greco-Roman comparis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등이 있으며, 세계문학의 입문서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 *the Norton Anthology of World Literature*와 *the Norton Anthology of Western Literature*의 공동 편자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옥스퍼드대학 출판부에서 중국문학에 관한 핸드북(*The Oxford Handbook of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Oxford University Press, 2017)의 공동 편자 및 집필자로 참여하였으며, 와세다대학의 고노 기미코(河野貴美子) 교수와 함께 일본 및 동아시아에서 고대 이래 '문'의 세계가 '근세화'되는 과정, 그 다음 단계인 '근대화=문학(literature)화'의 과정, 전후(현대)의 '문학'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문학 및 문화 비교에 대한 연구서를 공동 편집 중이다.

## 강연 개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동아시아 역사 상 처음으로 한자문화권이 없어진 불안정한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곧, 2000년동안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한자문화권은 20세기에 들어 국가 이데올로기의 등장과 전쟁으로 인해 급격히 해체되었으며, 20세기의 어두운 역사는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 및 외교의 긴장상태로 여전히 이어지면서 한자문화권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본 강연은 미래가 없어 보이는 한자문화권의 미래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문화 비교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강연에서는 최근 서구의 학계에서 새롭게 수립 중인 ‘Sinographic Studies’ 곧 ‘동아시아 비교 연구’의 현재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동아시아 각국의 비교연구를 통해 한자문화권을 개념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의 세계사적인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유럽 중심의 학술사 및 문학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유럽문화권과 대비되는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를 현재에 되살리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강연에서는 비교연구의 방법을 한자문화권 형성기 한국과 일본의 역사서에 수록된 시가 작품에 적용하여, 한자문화권 각국의 문학 실천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강연의 목적은 전근대 한자문화권의 비교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의 공통문화 유산을 유지하면서 동아시아의 평화적인 미래를 찾는 데에 있다.

In Search of a Future for "Sinographic Studies": The Poetics of Literary Beginnings in Korean and Japanese Historical Chronicles

뵘케 데네케  
Wiebke Denecke  
보스턴 대학교  
denecke@bu.edu

동아시아 문화 비교 연구의  
미래를 찾아서:  
한자문화권 형성기 한국과 일본의 역사서에 수  
록된 시가의 기능을 중심으로

Map Scaled by 2015 GDP



Daniel Doering et al. Atlas der wirklichen Welt (2015)

동아시아 표의문자 문화권의 언어 상황의  
개념화는...?

- 한국, 일본, 베트남의 한문과 토착어가 공존했던 언어 상황을 파악하는 전문 용어 부재
- Bilingualism?? (= 2개 국어, 구어의 상용(常用))
  - 반중:
    - 한문이 lingua franca 아니라 "scripta franca" / "grapholect"로 기능
    - 訓讀(くんどく): 한자의 뜻을 새겨서 읽는 방법
- Diglossia?? (표준어/방언/사투리)
  - 반중: 일본에서 국문의 고급스러운 기능: 祝詞(prayers), 宣命(imperial edicts), 외교와 관련된 和歌(waka poems)
- 전근대 일본의 언어 상황은..? "biliteracy"! (2개 문어)
  - 언어: monolingual (단일 구어)
  - 문헌: biliterate (이중의 문어)
  - 문장: tricanonical (삼중의 문학정전: 중국 한문, 일본 한문, 일본 국어)

19세기-21세기 동아시아의 비교적인 문학사

- 日本「文」学史 A New History of Japanese "Literature"
  - 河野典美子 / Wiebke DENECKE / 新川登魚男 / 陸野英則 (編)
- 第1冊 「文」の環境——「文学」以前(2015년)
- 第2冊 「文」と人びと——継承と断絶(근간: 2016년)
- 第3冊 「文」から「文学」へ——東アジアの文学を見直す(근간: 2017-18년)

